

## 주요 내용

### IMF 이후 단위노동비용의 변화 추이와 함의

#### 단위노동비용 감소와 경쟁력

- 98년 임금 삭감, 산출 감소폭을 초과하는 노동투입 감소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함으로써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다소 개선됨
-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향상은 부가가치 증대와 고용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것이어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

#### 98년 단위노동비용의 추이

- (전산업) 명목임금 2.5% 감소, 노동생산성 1.9% 상승(노동투입량 7.1% 감소)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-4.3%의 감소세를 보임
- (제조업 중분류별) 산업별로 산출량 증가율 편차가 크고,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변화 정도의 차이로 인해 단위노동비용의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
- (美 달러貨 기준) 원貨 기준 단위노동비용의 감소에 더해 원貨의 대외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절하됨에 따라 크게 하락함

#### 특징

- (명목임금 감소) IMF 위기 이후 진행된 구조조정에 따른 명목임금 하락을 통해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함
- (취업자수 감소 중심 생산성 증가) 부가가치 산출 및 고용 증가가 동반되는 선순환적 양상이 아닌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수 감축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
- (산업간 비효율적 인력 이동) 고부가가치 산업의 취업자수는 감소한 반면, 저부가가치 산업은 정체 내지 증가하여 생산성 감소 및 단위노동비용 증가

#### 시사점

- (고용유연화 확대 필요) 경기 변동에 따른 산출량 부침이 심한 업종들 대부분에서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노동생산성이 감소함
- (근본적 노동비용 축소 긴요) 기본적으로 저인건비 구조를 추구하는 한편, 비가격 경쟁력 강화,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가 요구됨

기획 논단

IMF 이후 단위노동비용의 변화 추이와 함의

민 주 홍

단위노동비용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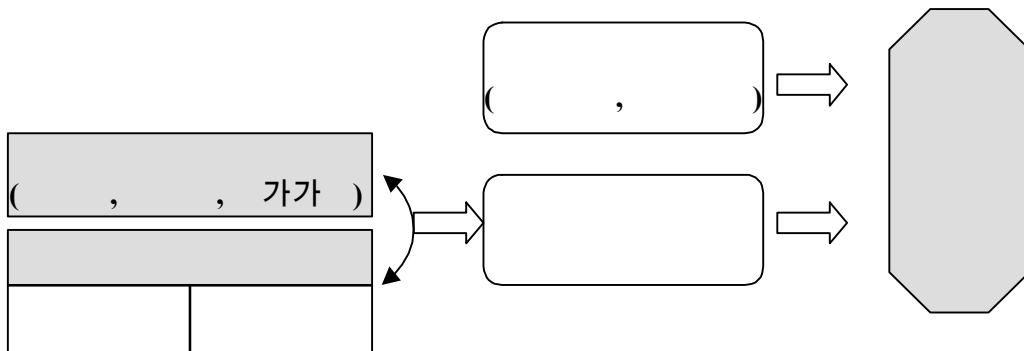
- 98년에 전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-4.3%의 감소세(제조업은 97년 이후)를 기록함
  - 이는 그 동안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이 축소되었음을 의미함
- 그러나 98년의 단위노동비용 감소는 임금 삭감, 고용 감축에 주로 기인한 결과임
  - 즉 산출 및 생산성 증가가 동반되는 근본적·지속적 요인에 의한 경쟁력 향상이 아니어서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음

단위노동비용의 의미

● 단위노동비용(ULC: unit labor cost)의 개념

- 노동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것, 즉 제품 1단위 생산에 투입된 노동비용을 의미함
  - 한편 이는 '명목임금'과 '노동생산성'과의 관계로 변환될 수 있음
- 노동비용 대신 임금 지표가 사용된 경우는 '노임단가지수'로 명명하기도 함
  - 이 경우 일반적으로 노임단가는 단위노동비용보다 작거나 같음. 왜냐하면 임금은 노동비용을 구성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임

< 단위노동비용의 결정 경로 >



● 의미

- 일반적으로 단위노동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의 인상 압력이 발생함
- 반면 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임금 감소폭이 크거나 임금 상승분 이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여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수도 있음
- 또한 노동비용 측면에서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할 경우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美달러貨 등 특정 통화로 환산한 단위노동비용을 사용함
- 즉 경쟁력 비교에 있어서 단위노동비용 지표는 노동생산성까지 고려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노동비용이나 임금의 비교에 비해 더 뛰어나

98년 단위노동비용의 추이

● 전산업 단위노동비용

- 1995~97년 중에는 연평균 3.9% 증가하였으나 98년에는 -4.3%의 감소세를 보임
- (명목임금) 97년 7.0% 증가로 크게 둔화된 데 이어 98년에는 임금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.5% 감소함
- (노동생산성) 취업자수와 근로시간이 다 같이 줄어들어 노동투입량(-7.1%)이 산출 감소(불변 GDP 기준, -5.3%) 이상으로 감소하여 노동생산성이 1.9% 상승함

< 산업별(대분류)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추이 >

(단위: 전년 대비 %)

	1995	1996	1997	1998
전산업	4.5	5.9	1.2	-4.3
광업	-22.4	2.7	26.5	-5.0
제조업	1.4	1.2	-6.7	-12.7
전기가스 및 수도사업	4.6	16.1	-1.3	-21.9
건설업	6.8	3.5	7.5	-20.4
도소매 및 음식숙박업	4.5	8.3	6.1	1.3
운수창고 및 통신업	8.6	14.5	0.7	-5.8
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	12.7	10.0	6.3	-4.5
사회 및 개인서비스	6.0	7.1	6.4	8.1

자료: 노동부, 「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」, 각 호  
한국생산성본부, 「생산성리뷰」, 각 호

- (산업별) 사회 및 개인서비스,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소폭 상승을 제외하고는 임금 감소와 생산성 증가로 단위노동비용이 모두 하락함
  - 하락: 임금이 소폭 감소한 가운데 노동생산성이 다소 증가한 광업(-5.0%), 운수창고 및 통신업(-5.8%),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(-4.5%)
  - 크게 하락: 임금 감소폭 및 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컸던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(-21.9%), 건설업(-20.4%), 제조업(-12.7%)
  - 상승: 고용조정의 강도가 낮아 노동생산성이 임금 감소보다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(1.3%), 사회 및 개인서비스(8.1%)

● 제조업 업종별 단위노동비용<sup>1)</sup>

- 제조업 전체로는 97년 7%대 감소에 이어 98년에는 13% 정도 감소함
  - (명목임금) 97년 5.2%로 크게 둔화되었으며 98년에는 3.1% 감소함
  - (노동생산성) 경기침체로 산출량이 7.5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투입량이 17.8%나 감소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12.4% 상승함

< 업종별(제조업 중분류)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추이 >

(원화기준, 단위: 전년 대비 %)

	1995	1996	1997	1998		1995	1996	1997	1998
음·식료품	10.4	-1.9	-2.7	-8.2	비금속 광물	6.4	-3.2	-2.9	-10.2
섬유	-0.4	3.3	-0.8	-2.9	제 1차 금속	1.9	-4.9	-14.0	-2.8
의복 및 모피	21.5	-3.4	13.6	3.4	조립금속	-2.6	-3.0	-1.3	-10.9
가죽·가방·신발	8.7	3.2	13.7	3.9	영상·음향·통신장비	0.4	-2.3	-18.5	-33.0
목재 및 나무	3.9	13.9	-7.3	-5.7	의료·정밀·광학기기	4.5	-5.0	7.7	10.5
출판·인쇄	-2.7	16.1	9.2	-12.8	자동차 및 트레일러	10.8	7.5	-10.7	6.5
화합물 및 화학	6.8	-0.9	-7.6	-6.5	기타 운송장비	11.7	1.5	-15.0	-28.1
고무 및 플라스틱	3.7	1.8	-5.6	4.6	가구 및 기타	2.9	3.8	7.3	-11.1

자료 : 앞의 자료

주 : 상용근로자 기준 노동투입지수가 사용됨으로 인해 실제 근로자수를 과소 산정, 노동생산성이 다소 높게 산출된 측면이 있음

1) 중분류 업종별 부가가치 산출량 통계 문제로 인해 산업생산지수를 이용한 (물적)노동생산성을 사용해 단위노동비용을 산출, 분석함

- (업종별) 제조업 전체로는 단위노동비용이 하락한 반면 업종별로는 노동생산성 변화 양상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상승, 하락 및 대폭 하락 업종 등으로 구분됨
  - 하락: 생산성이 증가 내지 소폭 감소한 가운데 임금 하락이 더욱 컸던 음·식료품(-8.2%), 섬유(-2.9%), 목재 및 나무(-5.7%), 화합물 및 화학(-6.5%), 비금속 광물(-10.2%), 1차 금속(-2.8%), 조립금속(-10.9), 가구 및 기타(-11.1%)
  - 크게 하락: 영상·음향·통신장비,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대폭적인 산출량 증가(각각 29.3%, 37.0%)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40% 이상 상승함으로써 단위노동비용이 30% 내외로 크게 하락함
  - 상승: 산출량의 큰 폭 감소에 비해 노동투입 감소폭이 적어 노동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(6.5%)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(10.5%), 고무 및 플라스틱(4.6%), 가죽·가방·신발(3.9%), 의복 및 모피(3.4%)

● 달러화 표시 단위노동비용(제조업)

- 美달러화 기준 단위노동비용 감소율이 -19.4%(97년), -45.8%(98년 상반기)에 달해 미국, 일본, 대만 등 주요국에 비해 훨씬 크게 하락함
  - 이는 97년 및 98년에 원화 기준 단위노동비용이 감소된데다 원화의 대외가치가 주요국 통화보다 훨씬 큰 폭으로 절하됨에 따른 것임
  - 즉 달러화의 큰 폭 절하로 인해 달러표시 임금 수준이 98년에는 대만의 70% 수준 이하(96년 117%), 미국 및 일본의 30% 수준으로 크게 낮아짐

< 주요국의 제조업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비교 >

(단위: 전년 대비 %)

	1994	1995	1996	1997	1998(상반기)	
						대미달러환율
한국(미달러화 기준)	-0.8	3.9	-1.5	-19.4	-45.8	41.4% 절하
미국	-3.1	-3.3	-1.3	-1.0	-1.3	
일본(미달러화 기준)	9.5	3.8	-14.8	-12.7	-7.1	8.8% 절하
대만(미달러화 기준)	0.9	-0.1	-3.7	-5.6	-14.5	17.0% 절하

자료: 미국 노동통계국(BLS), *Monthly Labor Review*, 각호.

한국은행, '단위노동비용의 최근 추이 및 주요국과의 비교', 1999. 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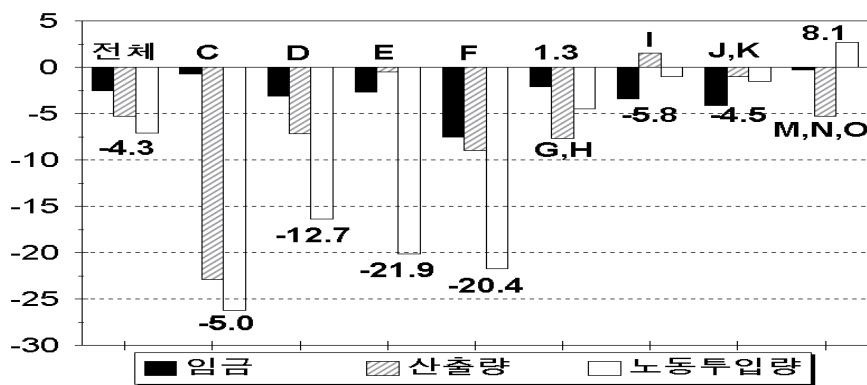
주: 97년까지는 BLS, 98년 수치는 시간당 명목임금 기준 한국은행 자료임

## 98년 단위노동비용의 요인 분석

### ● 전산업 대분류별

- 명목임금의 감소와 산출 감소폭을 초과하는 노동투입량 감소의 양상을 보이면서 대부분 산업의 단위노동비용이 감소세를 기록함
- 다만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임금 감소폭보다 크게 하락함으로써 단위노동비용이 각각 1.3%, 8.1% 증가함
- (산출량) 불변 GDP 기준 산출량이 전산업 평균 5.3% 감소함
- 특히, 광업의 경우 23%나 감소했으며, 건설업 -9%,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-7.7%, 제조업 -7.2%로 다소 크게 감소하였음
- 한편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,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는 각각 -0.5%, -1.0%로 소폭 감소했으며 운수창고 및 통신업은 1.5% 증가함
- (노동투입량) 전산업 기준으로 취업자수의 감소(-5.3%)를 중심으로 7.1% 감소함
- 특히, 광업(-26.2%), 건설업(-21.7%),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(-20.1%), 제조업(-16.4%)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매우 커 노동투입량이 큰 폭으로 감소함
- 한편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(-4.5%),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(-1.5%), 운수창고 및 통신업(-1.0%)은 고용조정의 강도가 매우 낮았으며, 사회 및 개인서비스(2.7%)는 오히려 노동투입량이 증가함

< 단위노동비용의 결정 요인별 변화(산업 대분류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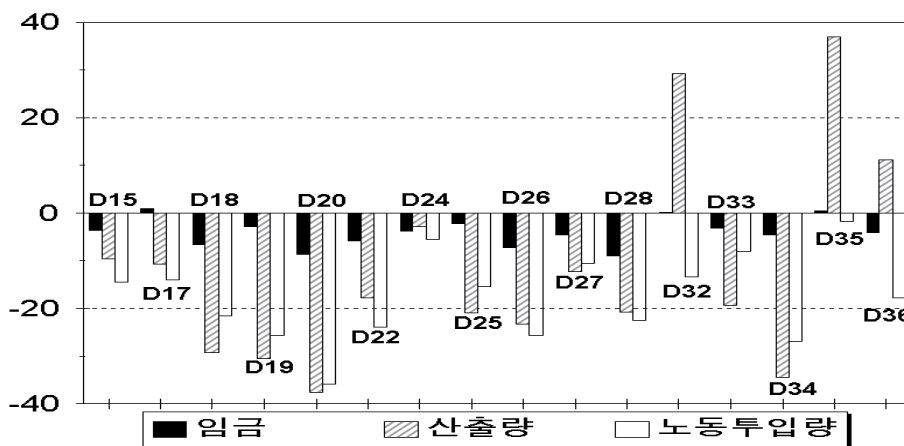


- 주: 1) 그래프 내 수치는 98년의 전년대비 단위노동비용 증가율임  
 2) C는 광업, D는 제조업, E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, F는 건설업, G,H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I는 운수창고 및 통신업, J,K는 금융보험부동산사업서비스, M,N,O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

● 제조업 중분류별

- 명목임금과 노동투입량은 대부분 업종에서 감소세를 보인 반면 산출량 증가율이 업종별로 큰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노동생산성 변화도 큰 편차를 갖음
  - 특히, 의복 및 모피, 가죽·가방·신발, 목재 및 나무, 고무 및 플라스틱, 1차 금속, 의료·정밀·광학기기,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은 고용 조정폭이 산출량 감소에 크게 못 미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크게 감소함
- (산출량) 산업생산지수 기준 산출량이 제조업 전체로는 7.5% 감소함
  - 목재 및 나무(-37.7%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-34.5%), 가죽·가방·신발(-30.6%), 의복 및 모피(-29.3%), 비금속 광물(-23.3%), 고무 및 플라스틱(-20.9%), 조립금속(-20.8%)이 크게 감소함
  - 한편 기타 운송장비제조업, 영상·음향·통신기기는 각각 37%, 29%나 증가함
- (노동투입량) 제조업 전체로 취업자수의 감소(-13%)를 중심으로 17.7% 감소함
  - 의복 및 모피(-21.6%), 가죽·가방·신발(-25.7%), 목재 및 나무(-35.9%), 출판 및 인쇄(-23.9%), 비금속 광물(-25.7%), 조립금속(-22.5%), 자동차 및 트레일러(-26.9%)가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함

< 단위노동비용의 결정 요인별 변화(제조업 중분류) >



주 : D15는 음식료품, D17은 섬유, D18은 의복 및 모피, D19는 가죽·가방·신발, D20은 목재 및 나무, D22는 출판·인쇄, D24는 화합물 및 화학, D25는 고무 및 플라스틱, D26은 비금속 광물, D27은 제 1차 금속, D28은 조립금속, D32는 영상·음향·통신장비, D33은 의료·정밀·광학기기, D34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, D35는 기타 운송장비, D36은 가구 및 기타제조업

---

## 98년 단위노동비용 변화의 특징 및 시사점

- (명목임금 감소)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IMF 경제 위기 이후 명목임금이 하락하여 단위노동비용이 감소하게 됨
  - 이처럼 노동생산성의 증가 없는 노동비용 감소, 즉 명목임금 하락을 통한 단위노동비용 하락세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임
- (취업자수 감소 중심) 한편 노동생산성 증가도 산출 및 노동투입량 증가가 동반되는 선순환적 양상이 아닌 근로자수 감축을 중심으로 한 노동투입량 감소에 의해 주로 기인한 결과임
  - 즉 기술개발 투자에 의한 생산공정 개선이나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으로의 전환,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 아닌 경쟁력 취약 부문의 인력 감원에 의존한 현상임
  - 따라서 경기 회복과 더불어 기업들의 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자연적으로 노동생산성 저하 및 단위노동비용 재상승이 유발될 가능성이 큼
- (산업간 비효율적 인력 이동) 제조업, 전기가스 및 수도업, 건설업 등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에서 상대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인력 배분의 비효율적 이동이 폭 넓게 발생함
  - 즉 상대적인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취업자수의 대폭 감축에 의존해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, 사회 및 개인서비스 등 저부가가치 산업은 취업자수가 정체 내지 증가하면서 노동생산성이 감소, 단위노동비용도 상승함
- (고용유연화 확대 필요) 제조업 중 특히 경기변동에 따른 산출량 부침이 심한 업종들의 경우 고용조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으로써 노동생산성이 대부분 감소함
  - 산출이 20% 이상 크게 감소한 업종들 대부분의 고용 조정폭이 산출 감소폭보다 5~10%p 정도 낮은 수준을 보임
  - 예컨대 자동차 및 트레일러는 산출 35% 감소에 노동투입량 27% 감소
- (근본적 노동비용 축소 필요) 생산 공정의 개선, 고부가가치 창출 추구,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'고임금 저인건비' 구조를 이루어내야 함
  - 더불어 일시적 비용 축소에 의존한 경쟁력 제고가 아닌 품질·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 강화, 상품 및 지역의 전략적 차별화, 연구개발·합리화투자의 확대 등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임 (jhmin@hri.co.kr ☎ 724-4014)